단기어학연수 소감문

파견대학 : 중국 산동대(위해)
파견기간 : 2010.6.27~7.25
학　　과 : 정보통신공학과
성　　명 : 석 은 나
학　　년 : 4학년

산동성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이다. 웨이하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유 있게 기내식을 먹고 나니 금방 웨이하이에 도착해있었고, 마중나온 유학생들, 산동대 선생님, 우리와 같이 비행기를 탔던 호서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렇게 4주간의 어학연수를 시작했다. 봉고차 두 대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고, 짐도 직접 실어주시며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산동대에 도착했고 한국 유학생 기숙사에 도착했다. 기숙사는 열쇠 보증금을 내야하고 인터넷, 냉장고, 에어컨을 이용료를 내고 이용 할 수 있다. 기숙사는 전부 2인실인데 책상, 스탠드, 침대, 옷장, 화장실이 있고 깨끗하고 넓고 창문이 아주 큰 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통금시간은 12시, 하지만 12시 이후에도 벨을 누르면 관리자 분께서 나오셔서 문을 열어 주신다. 기숙사를 쓰면서 불편한 점은 카운터에 말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신다. 청소해달라고 하면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준다고 한다. 3층엔 매점이 있고 한국 음료와 과자를 팔고 있지만,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서 아주 먹고 싶은 경우가 아니면 잘 사먹지 않는다.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한국과자를 금과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기숙사 바로 옆에는 한국 유학생 식당이 있는데, 한국 교환학생들은 가격이 비싸서 잘 이용하지 않고, 산동대에 학생식당이 5개가 있는데 제5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유학생 식당에는 메뉴가 많으니, 메뉴판을 보고 그 때 그 때 골라서 먹을 수 있다. 볶음밥부터 오므라이스, 탕수육, 삼겹살 등등 한국 학생들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리해 주는데 그래도 좀 느끼함으로 고추장이나 통조림 같은 것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았다. 산동대 제5식당 2층으로 올라가면 한국어로 메뉴가 적혀 있고, 샘플로 메뉴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중국은 음식을 푸짐하게 주기 때문에 두 명이 하나를 시켜 먹어도 배부를 것이고, 만두가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맛과, 가격면에서도 유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교환학생들이 제5식당 오른편에 있는 햄버거 가게가 아주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먹어봤는데, 가끔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학교근처에는 한국어 간판으로 된 식당도 아주 많고, KFC나 BBQ, 피자헛, 삼겹살집도 있으므로 중국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때에 이용하면 된다.

중국어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시작이다. 한국은 수업이 9시에 시작이지만 중국은 모든 수업이 8시부터 시작된다. 중국에서 지내다 보면 중국인들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시작하고, 오후 8시쯤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해나 북경은 관광객이 많아서 새벽까지 운영하는 가게가 많지만 위해에서는 오후 10시이면 길거리가 캄캄하다. 중국어 수업은 기숙사와 바로 붙어있는 유학생 건물에서 진행된다. 8시부터 10시까지 기본적인 단어, 회화를 공부하고, 11시까지 한시간동안 대화를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입으로 큰소리로 따라 읽고 선생님도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 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수업내용만으로 중국에서 지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중국어 책 한권을 더 가져가거나, 주머니 회화 책 같은 조그만 책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 한자를 잘 모른다면 전자사전을 꼭 들고 다녀야 할 것이다. 중국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중국어 실력과 한자 실력을 쌓아놓고, 중급반으로 바로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는 기초반에서 공부하였는데 중국어 수업은 좀 부족하고 아쉬웠다. 다음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어 수업시간을 5~6시간 정도로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또 태극권이나, 종이오리기, 중국음식 만들기 등등 여러 문화체험은 학교 측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준비하는 데에 한 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고, 또 너무 대충 준비해서 실망을 했던 적도 있었다. 또 일정이 갑자기 종종 취소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가 일정을 물어보면 학교 측에서도 일정을 몰라서 첫 주 동안은 아무런 일정 없이 시간을 보냈었다. 또 우리 한국 유학생들 보다 다른 스웨덴이나 러시아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불쾌하기도 했었다. 중국에 간다면 하고 싶은 말이나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관계자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물건 값도 더 높게 부르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서 바가지를 쓴 적도 있었다. 화가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국어를 못하니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오후에 시간이 남으면 학교를 둘러보기도 하고, 산동대 서문쪽에 있는 해변에 가서 놀기도 했다. 밤에는 해변에서 호밍등에 소원을 적어서 날려보내기도 했고, 근처 꼬치집에서 꼬치를 사먹기도 했다. 메뉴가 한자로 되어 있어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다른 학생들과 아무것이나 찍어서 주문한 메뉴를 맛보는 것도 재밌었다. 주말에는 유공도나 청도를 다녀왔다. 중국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기 전에 자세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미리 버스 번호를 알아둔다면 어디서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짧은 시간인데 나는 그 한 달 동안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다. 중국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중국어를 배웠고 무엇보다 직접 중국인들과 부딪혀가며 말을 하다 보니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자신감을 배운 것이 가장 크다. 주말에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중국문장을 직접 말하면서 익힐 수 있었고, 중국문화를 직접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타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고, 우리학교 친구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산동대에 교환학생으로 있던 한유리 친구 덕분에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학교에서나 중국에서 지내는 것이

수월했던 것 같다. 위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후련함도 있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다.

단기어학연수 소감문

파견대학 : 중국 산동대
파견기간 : ·1개월
학　　과 : 정보통신
성　　명 : 이원정
학　　년 : 3

제가 처음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 단계 발전 모습과 상해 엑스포가 끝난 후에 또 다시 발전하며 세계중심이 될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중국어를 학습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번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전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을 쌓고 싶어서 오기 전에 미리 중국어 기초 회화를 공부하고 어학연수 동안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서 왔습니다.
처음 위해공항에 도착해서 호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니며 현지 교환학생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고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첫 수업을 듣기 전에 학교에서 레벨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레벨테스트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기초반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미리 중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테스트를 받은 이후 더 높은 반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중국어과 학생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중국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기초적인 중국어를 미리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와서 복습 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중국인 선생님께 처음 수업을 듣는다면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고 지루 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리 공부하고 온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학습할 때는 전자사전은 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며, 이곳에서는 기초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더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교재를 사오거나 현지에서 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기초중국어 교재 3권정도 가져오고 현지에서 301구 기초 교재도 구입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보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어병음을 보고 읽을 수는 있지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지 중국인 선생님께 그때그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녹음기나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있다면 녹음해서 단어나 문장의 발음을 15번 30번씩 성조를 조심해서 읽으면서 연습하면서 조금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어 수업은 보통 하루에 두 시간을 학습하고 한 시간은 보조 교사가 복습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 학습을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자유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 하느냐에 따라 한달 동안 이기는 해도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오전 수업 외에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2일 동안에는 태극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신술로도 유용하고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많은 땀이 나고 운동이 되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하는 쿵푸를 직접 보고 앞에 나가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서예는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예가 낯설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낯설고 흥미 있는 글쓰기 인듯했습니다.
또 중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는데 보통 1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로 첫잔은 한번 헹구어 주고 그 다음 잔부터 차를 마시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도 다르고 효능도 다른데 보통 녹차는 소화가 안되거나 몸이 찬 사람에게는 많이 안좋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음료나 물보다는 평소에 차를 많이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차를 끓이는 개념이 아니고 우려내서 마십니다. 보통 찻잎을 한번 넣으면 6~7번까지 우려내서 마십니다. 워낙에 중국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차를 많이 선물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외에도 종이 자르기, 리본 매듭짓기, 만두만들기, 경극 공부,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종이자르기를 해서 만든 종이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방문 앞에 걸어놓으면 행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만두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 같은 JIAOZI라는 만두와 MANTOU라는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만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등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야채로 만들어서 만든 만두가대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경극에는 보통 탈을 쓰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함께 부르고, 무술을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탈 모양은 정말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 탈의 색깔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극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단 아주 화려한 것도 있고 웬 지 오래되고 무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텔레비전이의 음악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고 젊은 사람들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학습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중국 현지인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 하는 동안에 실제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만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학습했던 중국어를 연습해볼 시간도 없고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지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오빠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인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몇 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농구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해서 조금이나마 더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동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한국어학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어과정을 하는 중국인들도 많았고, 계절 학기를 듣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마음만 먹고, 소개 받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중국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쪽에서 먼저 소개해 주는 일은 없지만, 본인이 계속 물어보고 요청하고 친해지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짧을 거라 생각하는 1달 동안에도 충분히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학교내에 한국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인들과도 놀고 즐길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동안에도 그저 한국에서랑 똑같이 노는 것 보다는 우리보다 먼저와서 중국어 학습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라도 하나 더 물어보고 식당가서 필요한 대화 한 문장이라도 더 배우고 연습한다면, 한국인과 함께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중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칫 너무 한국인들과 놀면서 중국문화도 접하지 못하고, 한국어만 하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을 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던 산동대학교의 유학생 기숙사에서 서문으로 나가서 5분정도만 걸어가면 국제해수욕장이 위치해있어 원한다면 언제든지 수영을 하고 바다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내에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여행사를 이용해 패키지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기차표 예매 대행도 해줍니다. 중국어가 많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힘들고 많이 힘들수가 있으니 패키지를 이용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첫주 주말에 가까운 위해 해상공원과 유공도에 다녀왔는데, 둘 다 학교 앞 건너편에서 7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유공도는 종착지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들어갔고, 배 타는 곳 바로 옆은 해상공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상들로 꾸며져 있는 해상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청도를 다녀왔는데, 여행사를 끼지 않고 여행정보를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값이 싼 유스호스텔로 예약을 하고 여행정보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돌아다닌다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치안도 잘 되어있고, 청도에는 관광지가 모여 있어서 찾기도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책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닌다면 위험하거나 불편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생활할 때 생필품들은 싸기 때문에 직접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가져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물품을 샀고, 현지에 씨티 은행이나 마스터 카드를 사용 할수 있기 때문에, 환전도 필요한 만큼 하고, 부족할 경우에 금방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보다는 씨티 은행이 수수료도 저렴했기 때문에 씨티 은행 카드를 여러 개 챙겨왔다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6월부터는 천안과 정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에 입던 옷을 가져와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름이후에는 5월까지 계속 매우 춥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오래 머물을 거라면 두꺼운 옷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수건이 없어 챙겨 와야 하며 빨래는 그때그때 세탁기를 이용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와서 열흘 정도는 중국음식을 무리 없이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교환학생 친구의 말로는 와서 하루만에 그럴 수도 있고 일주일, 한달 만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 기본적인 소화제나 의약품, 지사제 등은 챙겨오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아픈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고, 중국 약이 더 독하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챙겨오는 것이 유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음식과 도로에서 차, 사람들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사람들을 조심해야하며, 소매치기 또한 조심해야 하며, 차들이 질서 있게 안다니고 사람이 지나가도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가급적 밤에 다니지 말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밤늦게 까지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다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비자를 90일 비자로 하여 한달 간의 산동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데, 30일 단기 비자를 하거나 단체비자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해서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여행을 다니거나 머물고 싶다면 미리 비자를 신청할 때 90일 비자나 그 이상의 비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예전보다 많이 중국이 발전했고, 대학생들의 생각도 많이 넓고 점점 더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발전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급

격한 성장을 하 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중국이 더럽고, 후진국이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위험한 나라라 생각하여 오기를 많이 꺼리는데, 그러한 선입견들이 많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단기어학연수 소감문

파견대학 : 중국 산동대학교 위해분교
파견기간 : 2010.6.27 ~ 2010.7.25
학　　과 : 정보통신공학과
성　　명 : 최진규
학　　년 : 3

중국.. 처음에는 정말 못사는 나라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단기 어학연수였습니다.
요번에 중국에 가서 발전된 건물들을 보며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처음 배우게 된 중국어가 1개월 동안 배우고,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 보면서 정말 많이 친숙한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 외, 호서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남대학교 위 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중국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 그리고 주말에 여행을 가서 만난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며 그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각 나라간의 각 학교간의 문화의 차이 또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정말 단기 어학연수 온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시 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기 어학연수를 하며 아쉬웠던 점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타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 시간표가 전혀 달랐으며, 그 다른 시간표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그때그때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친구와의 교류, 기업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는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서 학생들에게 또 미리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표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음날 일정을 알려주면서 따라오라는 식의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한 프로그램(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외 타 프로그램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기타활동의 초점이 맞춰져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음식 문화 체험 중 만두 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은 2시경에 식당으로 내려와 만두를 빚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두를 빚고 나서 저희 학생들은 이제 만두 시식하는 일만 남은 줄 알고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관계자가 오더니 만두를 또 빚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외국인 학생들이 아직 만두 빚기에 참가를 안했으니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 학생들은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고, 지금 그냥 같이 빚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느낀 기분은 한국인 학생들은 그냥 들러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솔직히 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어감 차이에서 온 느낌일 수 있겠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그때 많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정말 좋은 것이 학교 측에서 유학생 식당에 돈을 미리 지불해 주신 덕분에 우리학교 학생들은 식사걱정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아침 식사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기분은 미리 돈을 지불했는데 밥을 안 주겠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여학생들이 박은영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외, 우리학교에서 지불한 금액만큼 밥을 먹지 못했던 점이 좀 언짢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유학생식당에서 1인당 아침은 10위엔, 점심/저녁은 15위엔으로 계산하여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학생들은 3명이 단기 어학연수 파견 나갔기 때문에 45위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게 된 경우가 있어서 2명의 학생이 유학생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당연히 45위엔을 지불했으니 45위엔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였는데 15위엔 정도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유학생식당 관계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생식당의 입장이 맞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학생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큰 틀로 위와 같이 3가지 문제점 외에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감문을 쓰다 보니 좋다고 느낀 점 보다 불편했던 점을 많이 나열 하였는데, 단기 어학연수 가서 너무 불편하게 있다가 온 것으로 오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몸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외국인들과 이야기 하며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연수자로 뽑아주신 대외협력팀 관계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잘 것 없는 소감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